

81年度 메이저의 經營実績 분석

- 石油協會 · 弘報室 -

텍사코를 除外한 全메이저의 收益은 減少하여 美国系 메이저는 前年对比 총4% 감소했고, BP와 셸은 각각25%, 9%의 收益減少를 記錄했다.

두 차례의 石油危機를 통해 나타난 국제石油정세의 변화는 그 동안 세계石油市場을 주름 잡아온 메이저(國際石油資本)에도 예외없이 시련을 안겨 주고 있다.

歐美제국의 景氣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節約과 燃料 전환으로 石油수요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정제시설은 과잉현상을 나타내고 생산비도 상승하는 등 사태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原油價格의 침식은 앞으로의 成長을 뒷받침할 자본과 힘을 잠식함으로써 앞으로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歐美제국에서 나타난 정제시설의 감축은 올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규모가 작거나 老朽化된 정유공장들은 폐쇄되거나 輕質油製品의 생산으로 전환하고 있다. 판매부문에서는 시설의 효율화와 계열화로 수요감소에 대처하고 있다. 主要石油会社들은 非 OPEC지역에서 石油 및 가스 資源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美国의 油價統制철폐로 석유개발 부문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油價가 안정되리라

는 展望때문에 대륙붕과 北極개발이 주춤하고 있다. 또 불투명한 수요전망때문에 石炭, 오일세일, 타르샌드등의 代替에너지開發도 보류되고 있다.

메이저의 위축은 第2次 石油危機이후 현저하게

〈메이저活動現況〉

(單位: 千B/D)

	原油供給量	精製量	製品販売量	天然가스販売量
액 슨				
1980	4008	4149	4953	7137
1981	3796	3878	4601	6727
增減率(%)	(-5)	(-7)	(-7)	(-6)
걸프오일				
1980	1224	1385	1346	2207
1981	1042	1133	1194	2079
增減率(%)	(-15)	(-18)	(-11)	(-6)
모 빌				
1980	1985	1980	2260	3600
1981	1805	1775	2140	3480
增減率(%)	(-9)	(-10)	(-5)	(-3)
소 칼				
1980	3009	2186	2375	1481
1981	2813	1988	2173	1439
增減率(%)	(-7)	(-9)	(-9)	(-3)
텍사코				
1980	3316	2533	2824	3103
1981	3188	2211	2656	2931
增減率(%)	(-4)	(-13)	(-6)	(-6)
美国系메이저집				
1980	13542	12233	13758	17528
1981	12644	10985	12764	16656
增減率(%)	(-7)	(-10)	(-7)	(-5)
유럽系메이저 BP				
1980	2386	1917	2390	307
1981	2298	1638	2190	345
增減率(%)	(-4)	(-15)	(-8)	+13
로얄더치셸				
1980	3719	3768	4301	5646
1981	3347	3315	4121	5628
增減率(%)	(-10)	(-12)	(-4)	-

나타나기 시작했다. 7대 메이저(美国系 5, 유럽系 2)는 78, 79년에 절정을 이루었다. 이 기간중 7대 메이저의 原油供給量은 하루 2천3백만배럴, 精製量은 하루 2천만배럴, 그리고 판매량은 하루 2천2백만배럴을 상회했다.

그러나 80년에는 原油供給量이 하루 1천9백 60만 배럴, 精製量은 하루 1천7백90만배럴, 제품판매량은 하루 2천50만배럴로 감소했으며, 81년에는 다시 原油供給量이 하루 1천8백50만배럴, 精製量 하루 1천5백90만배럴, 제품판매량 하루 1천9백10만배럴로 떨어졌다. 이를 절정기인 78~79년과 비교하면, 原油供給 및 가동량은 약20%, 제품판매량은 약15%가 감소한 것이다.

經營実績을 보면, 이러한 양상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감소추세는 대동소이하다. 메이저들은 지난

7대 메이저는 78~79년 중에 2,300万b/d의 原油를 공급했으나 이에 비해 81년에는 1,850万b/d를 供給, 稼動量은 20%, 제품 판매량은 약 15%정도 減少했다.

79년에 이란革命에 따른 原油價格폭등에 힘입어 순이익면에서 사상 최고를 기록, 美国系 5대메이저의 순이익은 1백10억달러로 69%의 伸張을 보였으며, BP와 셸은 각각 16억파운드, 30억5천파운드의 순

익증가를 나타냈다.

그러나 81년에는 텍사코를 제외한 쉘메이저들의 수익이 감소하여 美国系메이저는 전년대비 총 4%가 감소했고, BP와 셸은 각각 25%, 9%의 수익 감소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배당도 줄어 들었다.

앞으로 油類수요의 감소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메이저들의 경영은 더욱 악화될 것 같다. 메이저들은 지난 1/4 分期中 하류부문에서 결손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람코系 石油会社들(엑슨, 텍사코, 소칼, 모빌)은 과거에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原油채굴에서 이익을 올렸으나 이제는赤字로 反轉했다. 모빌, 걸프와 BP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엑슨, 텍사코, 소칼과 로얄 더치 쉘등 4대 메이저는 아직도 석유정세변화에 대처해 나갈

(메이저의 經營実績推移)

(單位: 백만달러, BP와 셸은 백만파운드)

	純 益	배 당액	유보액	감가상각 총 당금	자본적지출 및 탐사비	장기부채	固定資産 備 額	자기자본 이 익 륜
액 수								
1980	5650	2348	3302	2282	8040	4717	30311	23.6
1981	5567	2594	2973	2948	11089	5153	36094	20.6
增 減 率(%)	(-1)	+10	(-10)	+29	+38	+9	+19	
걸프 오일								
1980	1407	464	943	1152	3001	1414	10886	15.3
1981	1231	513	618	1295	4325	1742	13013	12.5
增 減 率(%)	(-13)	+11	-34	+12	+44	+23	+20	
모 빌								
1980	2813	733	2080	1399	4049	3256	15840	23.9
1981	2433	851	1582	1586	4374	3284	17710	17.6
增 減 率(%)	(-14)	+16	(-24)	+13	+8	+1	+12	
소 칼								
1980	2401	615	1786	767	3599	1109	8780	23.6
1981	2380	750	1630	909	5568	1164	11738	20.0
增 減 率(%)	(-1)	+22	(-9)	+19	+55	+5	+34	
텍 사 코								
1980	2240	661	1579	1106	2691	2374	11757	19.7
1981	2310	740	1570	1260	3166	2112	12753	17.6
增 減 率(%)	+3	+12	(-1)	+14	+18	(-11)	+8	
美国系메이저計								
1980	14511	4821	9690	6706	21380	12870	77574	21.2
1981	13921	5448	8373	7998	28522	13455	91308	17.7
增 減 率(%)	(-4)	+13	(-14)	+19	+33	+5	+18	
유럽系메이저 BP								
1980	1435	322	1113	851	1748	2190	7524	26.3
1981	1072	363	709	1253	3043	2788	11307	15.7
增 減 率(%)	(-25)	+13	(-36)	+47	+74	+27	+50	
로얄더치셸								
1980	2225	681	1544	1103	2927	4251	14818	19.8
1981	1797	689	1108	1281	3904	5518	17333	14.2
增 減 率(%)	(-19)	(+1)	(-28)	+16	+33	+31	+17	

□ 資料 □

수 있는 정도의 이익규모를 갖고 있다.

엑슨은 世界最大의 에너지供給者의 위치를 固守하기 위해 지난 5년간 資本의지출 및 탐사비의 90%를 에너지관련부문에 투입해 왔으며 81년에는 그 규모를 38%나 증액했다. 엑슨은 과거 石油일변도에서 이제는 石炭과 합성연료의 개발에 눈을 돌리고 있다. 이와 함께 美国内에서 신규油田과 가스田의 개발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또 수요 변화에 대처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 精油및 판매부문의 재편성도 추진하고 있다. 엑슨은 81년에 石油부문의 외 石炭의 증산에 성공했으나 수요전망이 불투명한 우라늄의 개발은 축소했다.

美国内에서 第2位인 텍사코는 86년말까지 7억 8천7백만달러가 소요되는 루이지애나 가스계약을 둘러싼 문제가 타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81년에 유일하게 순이익을 기록했다. 텍사코는 81년에 개발비를 18%나 증액, 美国内에서 石油및 가스개발을 적극 추진했다. 총개발비중 70%는 美国에, 10%는 西半球에, 그리고 나머지 20%는 東半球에 투자했다. 82년에도 이러한 개발전략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국내에서는 유틸정제시설을 폐쇄하고, 해외의 정제시설의 효율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칼은 81년에 高油價에 힘입어 국내에서 팔목할 만한 수익증대를 이룩했으며 또 지난 14년간 계속되어온 美国内 原油생산감소추세를 逆轉시켰다. 소칼은 자본적 지출및탐사비를 55% 증액했으며, 특히 美国内의 석유개발비는 75%나 증액했다. 해외 유전개발에 있어서는 앞으로의 原油導入先의 다변화에 대비하여 40여개의 油田을 개발했다. 소칼은 石油수요감소에 따른 수입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原油의 생산과 정제, 판매에 있어서 비용절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모빌은 이익보다는 많은 問題를 내포하고 있는

非에너지사업에 참여한 결과 메이저中에서 가장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모빌은 81년에 国内에서는 흑자를 기록했으나 해외부문에서의 대폭적인赤字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익이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장기부채는 별로 늘어나지 않았고, 투자도 증가했다. 모빌도 다른 메이저들과 마찬가지로 国内油田開發과 생산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코노코및 마라톤社의 인수실패로 현재는 주춤한 상태이다. 모빌은 앞으로 각종 에너지原의 개발과 精油工場의 효율성향상과 下流部門의 경비절감을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축소조정하는 현재의 일반적인 추세와는 달리 化学工業부문을 확장할 계획이다.

겔프 오일은 가동율저하와 수익격감으로 81년에 美国메이저中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現物市場에서 高價로 구입한 原油로 유럽市場에서 아람코系 石油会社들과 벌인 경쟁에서 패배한 결과로서 겔프의 유럽소재 정유공장의 가동율은 겨우 46%에 머물렀었다. 겔프는 海外活動의 비중을 줄이고 国内의 신규油田開發에 力點을 두고 있다.

BP는 지난 해에 世界的인 原油供給과잉과 需要감퇴의 영향을 받아 수익이 급감했다. BP는 현재 유럽内 정제시설의 23%를 폐쇄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이 정도로 시설과잉을 해소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지난해 石炭과 기타광물의 생산은 증대되었으나 기타부문에 대한 투자는 당분간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로얄 더치 셸은 경영실적면에서 엑슨 다음으로 2위를 기록했다. 81년에 순이익은 엑슨이 56억달러인데 대해 셸은 34억달러를 기록했고, 총자산은 엑슨의 3백60억달러에 대해, 셸은 3백30억달러를 기록했다. 경영규모는 거의 엑슨에 필적하며, 텍사코보다 크다. 셸은 지난해 전체수익의 69%를 美国内의 셸오일을 통해 벌어들였다.*

意識改革으로 社会淨化 이룩하자